



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,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자살예방 협력 추진

- 여성기업 대상 자살예방교육 추진,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등 협력 약속

-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)는 6월 29일(월) 한국여성경제인협회(회장 박창숙)를 방문하여 여성기업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.
- 이번 논의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여성기업인이 겪는 경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필요성을 공유하고,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·지원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정 여성 경제단체로, 337만 여성기업을 대변하여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.
- 양 기관은 이날 ▲여성경제인 협회 회원 대상 교육과정에 자살예방·생명존중 관련 교육 신규 편성 ▲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 자살예방 안내문 배치 ▲향후 여성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.
- 특히, 여성은 경제활동과 가정 내 돌봄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,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.

-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창숙 회장은 “경영자의 정신적 안정은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다. 일·가정 양립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기업인들이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고 경영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”며,
 - “이번 협력이 여성기업인의 마음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‘심리 안전망’으로 작동하도록 여경협이 앞장서겠다”고 강조했다.
- 생명지킴추진본부 송민섭 본부장은 “자살예방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”라며 “오늘 논의가 여성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확산의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-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,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	
---	--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오보언 (044-200-6373)
	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사무관 박혜정 (044-200-6395)